

예배 WORSHIP

February 10,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p>지역과 행사 안내</p> <p>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p> <p>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p> <p>주님 가르치신 기도</p> |
| 말씀과 결단 | <p>성경말씀</p> <p>고린도전서 4:1-7</p> <p>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p> <p>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p> <p>결단의 찬송</p> <p>찬송 595장 / 나 말은 본분은 (통일찬송 372장)</p> |
| 헌신과 나눔 | <p>봉 헌 / 박진성 집사 정줄리 권사</p> <p>*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p> |
| 삶과 세상으로 | <p>* 여기에 모인 우리</p> <p>* 축 도 / 김성배 목사</p>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정홍렬 목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5:15-23
결과와 환경을 조율한 모세의 충성

그러나 한마디로 작은 교회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작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자원으로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사람들'이나 '그릇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자원, 우리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일하셨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바른 사람들'이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다. 그들은 목회자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버스가 아니다. 그들 자체가 목적지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이제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나누어 볼 때가 됐다.

목상에세이

프로와 매너리즘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 이유를 '김미경의 아트스피치'라는 책에선 '신선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선도는 다른 말로 하면 초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선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겨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반면 신앙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고 신앙고백의 초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애 3:22-23)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신앙의 프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손석일 목사 -

한 주간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약해질 때가 있으며 사역 속에 쉽게 지칩니다. 치유가 예수님의 자녀가 받을 마땅한 떡이라 하셨으니 이를 믿으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께서 우리의 상한 영과 육을 고쳐 주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와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교민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 『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한다.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독특한가? 우리는 내 교회의 독특한 특성을 통해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큰 교회와 다른 규모 때문에 사역의 우선 순위가 달라짐과 관계, 문화, 역사가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관계 작은 교회는 관계에 의해 살고 죽는다. 위대한 비전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패는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관계는 성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친밀한 관계(예수님과과의 관계, 교우간의 관계, 복음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가 모든 교회에 중요하나 작은 교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문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거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전제와 현실을 포함한다. 교회 문화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할 수 있다. 너무 배타적이라 새 아이디어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지, 쉽게 새 아이디어를 반가와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지, 끊임없는 행사와 프로그램이라는 '잡초' 때문에 새 아이디어가 고사하는지, 아니면 간절한 열망과 수용적 자세로 인내심의 문화를 갖추고 있는지 말이다.

이처럼 교회의 문화는 위대한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전략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큰 교회나 새로운 교회에서 교회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은 목회자와 따르는 교인인 반면, 작고 오래된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교회의 역사가 문화를 주도하기 쉽다. 오랜 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목회자가 원하는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문화는 걸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해당하는 이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젊은 부부의 가정들을 더 많이 인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선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교인들은 걸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여러 유해한 요소가 있다: 감추어진 죄, 완고한 태도, 율법주의, 타협 등. 그런 그릇된 문화는 목회적 약속 파기, 신뢰의 상실,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같은 요인들이 오래 동안 누적된 결과이다. 현명한 목회자라면 토양을 뒤집어 그런 문화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 요인들이 계속 숨어서 목회자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아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것이다.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역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역사 교회를 개혁한 경우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 옛 추억에 잠겨 있는 완고한 교회에서 비전있는 새로운 사역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무작정 앞으로만 끌고가기 보다 그 교회의 기초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용감한 교회의 설립자들이 기술했던 헌신과 본래 의도를 아는 게 필요하다. 교회는 비전을 거부하는 자들,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에 의해 설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전에 영감을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절히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주: 섬김의 교회 개혁의 기억이 축복이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좋은 토양이 되어야겠다.)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의 리더십 분야와 기업계에서 인기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라."였다. 이는 기술, 감정적 균형, 관계 지수와 같은 것이 올바로 갖춘 이들과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올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신년 심방이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지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 퇴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4. 투석 치료를 위해 Cook County 병원에 입원 중인 정홍렬 목사님의 치료와 회복, 가족과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5. 제직/사역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제: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
6. 선교사 부부 초청 찬양집회와 여성 회복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17-19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유치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 교우 동정 : 김윤경 사모,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 이달의 생일 축하 : 정시현(2.5) 구민경(2.28) 유동숙(2.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 | | | |
|---------|-------------------------|--------|-------|-------|
| 주일예배기도 | 2/3 | 2/10 | 2/17 | 2/24 |
| | 박진성집사 | 고순제전도사 | 김훈태집사 | 오정은집사 |
| 금요일예배기도 | 2/8 | 2/15 | 2/22 | 3/1 |
| | 유동숙집사 | 정홍렬목사 | 최내권집사 | 최선윤집사 |
| 주일헌금위원 | 2/3 | 2/10 | 2/17 | 2/24 |
| | 박진성집사/정줄리권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 | | |
| 주일안내위원 | 2월 | | | |
| | 구민집사 | |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고린도전서 3:16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며 성전답게 살아야합니다. 성전 뜰에서 제사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성소는 대사장이 년1회 대속죄일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죄의 용서함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꿈꾸며 사모했고, 솔로몬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했고, 다니엘은 이국만리 타향살이하며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묵상과 기도 생활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 존재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 고린도전서 4:1-7

생사의 위기 앞에 저마다 발버둥치지만 부동 자세로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을 소재로 그려진 충성이란 제목의 그림은 그리스도인을 도전합니다.

누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가?

첫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둘째,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

셋째,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 고린도전서 4:1-7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 세 가지를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첫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 복음 -을 맡았습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한 집안의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 또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의 강도와 충성은 정비례합니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질수록 그만큼 더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둘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그 충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해 보다가 잘 안되면 포기하고 마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나서 우리의 유능함이나 세상 지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다 보면 낙망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게 될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맡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에 더욱 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크신 칭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가 영혼이 잘 될 때까지 내가 법사에 잘 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February 10, 2019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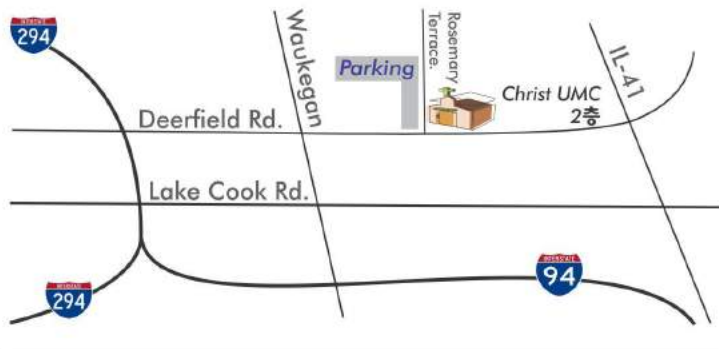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기도의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